The University of Osaka
Institutional Knowledge Archive

Title	아키나리(秋成)의 ‘거짓(偽り)’의 문제 : 하루사메 모노가타리(春雨物語)를 중심으로
Author(s)	이쿠라, 요이치
Citation	日本研究. 2010, 13, p. 139-165
Version Type	VoR
URL	https://hdl.handle.net/11094/49998
rights	
Note	

The University of Osaka Institutional Knowledge Archive : OUKA

https://ir.library.osaka-u.ac.jp/

The University of Osaka

특별기획3

아키나리(秋成)의 '거짓(偽り)'의 문제

-『하루사메 모노가타리(春雨物語)』를 중심으로-

이쿠라 요이치

시작하며

아키나리의 만년 작품에는 '거짓(偽り)'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것은 특히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에 현저하다. '거짓'이라는 말은 『우게쓰 모노가타리』에서는 아홉 편의 이야기 중에 겨우 한 편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1808년(文化 5년) 판본의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에서는 서문과 열 편의 작품 중 일곱 편에 나온다. 이렇게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에 용례가 많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의 주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거짓'에 대한 검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 서문과 「번쾌」의 마지막 장면

본 논문에서는 『하루사메 모노가타리』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브로서 '거짓'을 고찰하고자 한다. 용례는 유일한 완본인 1808년(文化 5년) 판본에서 인용하겠다. 먼저 서문을 보자. (인용부호, 구두점, 밑줄, 괄호 안의 부기(附記)는 이쿠라가 덧붙인 것이다. 이하 동)

봄비가 내린 것이 오늘로 며칠째. 조용하고 정취 있다. (노래를 읊고 써보려고) 사용하던 벼루를 꺼내 보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노래로서) 쓸 것이 없다. '(한편) 이야기를 쓰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이다. (그러나 한 번 해보자).' '그러나 나와 같이 하찮은 사람이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무엇을 쓸 수 있을까. 나도 고금의 일을 사람들에게 속아왔고, 또 내가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거짓을 이야기해도 괜찮은가).' '그것은 괜찮다고 하자. 지어낸 이야기를 계속 해도, 평가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써야 하는지, 쓰지 말아야 하는지를 혼자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다보니, 아직 봄비가 내리고 있다.'

(1808년(文化 5년) 판본『하루사메 모노가타리』서문)

나 자신도 서문에 대한 고찰을 여러 번 했지만, 위와 같이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이하를 자문자답이라고 해석하면 알기 쉽지 않을까? 여기에서는 명확한 이야기의 허구 의식과 함께, 허구를 '거짓'이라는 윤리성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거짓'은 종래에 '우언(寓言)'론의 관점에서 표현 방법론적으로 논해졌다. 그러나"그것은 괜찮다고 하자라는 말이 있는 이상, '거짓'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가책을 엿볼 수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표현을 주저하는 의식이 긴장감을 이루고 있다.

나는 좌담회 <아키나리(秋成)>(이나다 아쓰노부, 기고시 오사무, 나가시마 히로아키, 이쿠라 요이치에 의함.『문학(격월 간행)』2009년 1, 2월호, 이와나미 서점)에서 이것을 주장했지만 출석자들의 동감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서문의 윤리성에 대해서는 최근 니시다 고조도 주목하고 있다(「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가 - 『대학(大學)』부터 『마음(心)』까지」(『혼돈』6, 2009년 3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속아왔고, 또 내가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지금까지「해적」마지막 부분과의 호응이 자주 문제시 되었다.

이것은 내가 속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붓은 사람을 찌른다. 또 사람에게 찔리는 것이지만 서로 피를 보지는 않는다. (도미오카 판본『하루사메 모노가타리』「해적」)

내가 거짓을 전하여 또 사람을 속였다. (1808년(文化 5년) 판본『하루사메 모노가타리』「해적」)

이것을 근거로 처음 3편이 <역사소설>로서 완결성이 있다고 설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종래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던 "지어낸 것을 계속 이야기해도, 평가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문구는 「번쾌」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된다.

> 이것은 미치노쿠(陸奥)의 오래된 절에 있는 대고승의 이야기이다. 그가 80여세의 고령에 오늘 죽으려고, 목욕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나 부처의 이름을 읊지 않으니, 시종과 객승 등이 다가가 물었다. "성스러우십니다. 시구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 "시구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진실을 이야기 하고 죽고 싶다. 나는 호우키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악도였다. 어쩌다 깨달은 바가 있어 오늘에 이르렀다. 석가도, 달마도 나도, 모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죽었다. "마음을 다스리면 누구도 불심이 되고, 내버려 두면 요마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번쾌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1808년(文化 5년) 판본 『하루사메 모노가타리』「번쾌」)

인용문의 밑줄 그은 부분은 임종을 맞이하는 번쾌에게 시구를 요구했을 때, "시구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설파하는 장면이다. 일반적으로 성스럽다고 생각되는 '말'(언설)이 '거짓'(지어낸 이야기)라는 인식이 서문과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신(保身), 이익, 회피 등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이지만, 타인을 미혹하는 그럴듯한 언설, 항설, 이야기도 가리킨다. 나는 그것들을 포함하여 '거짓'이란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이 『하루사메 모노가타리』 각 편이라고 생각한다. 서문은 확실히 「해적」마지막 부분과 호응하고 있지만, 「번쾌」마지막 부분과도 호응한다.

2. 『마스라오 모노가타리』와 '거짓'

1808년(文化 5년) 3월의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에 앞서서, 1807년(文化 4년)에는 『마스라오 모노가타리(가제)』가 집필되었다. 쓰는 행위의 '거짓'과 윤리의 문제는 이미 이 시점에서 아키나리에게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이하는 1768년

(明和 5년)에 여동생의 목을 자른 와타나베 겐다 사건(겐다 소동)을 소재로 한 아야타리(綾足)의『니시야마 모노가타리』비판으로 유명한 장면이다.

> 이 분(와타나베 겐다)의 일, 한 때는 세상에 알려져 전해졌지만, 지금 40년이 지나니 옛날이야기로만 이렇게 세상에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고, 나도 이러한 세간의 주목을 모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러한 대장부도 세상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살아서 오늘 만난 것은 황송하기만 했다. 오사와는 원래 와타나베 겐다 옹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옛날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이것이 <니시야마 모노가타리>이다. 주제 넘는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오히려 겐다 옹을 오해하게 하고 무익한 문장이 되었다. 중국의 연의소설과 일본의 이야기소설은, 그 만드는 사람의 현명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세상에 전해진다. 곧 흔적없이 사라질 것이 자명하니 말 할 것도 없다. 이것도 곧 사라질 것이다. 이 일의 사실을 엉성한 문장으로 기록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짓되지 않은 내용을 후세에 오래 전하고자 한다. 읽고 보는 사람들은 이 말하는 바를 헤아려, 세상에 널리 전해주기를 바란다. (『마스라오 모노가타리(가제)』)

"사람들에게 속아왔고 내가 거짓된 것을 또 전한다."라는『하루사메 모노가타리』서문의 인식과는 달리, '사실'을 거짓 없이 전하고자 하여『마스라오 모노가타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아키나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쓰고, "노인의 서툰 붓으로는 또 상처주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는 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거짓되지 않은 문장"이야말로 오래 전해야 할 것이라고 아키나리는 서술하고 있었다. 그러나『마스라오 모노가타리』를 다 쓴 아키나리는 "거짓 아닌"문장을 쓰는 것은 어렵다고 실감했다. 상상을 발휘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것은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숙명을, 아키나리는 여기서 통감했던 것은 아닐까?

아키나리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대로『하루사메 모노가타리』로 계승된다.『마스라오 모노가타리』와 같은 소재를 다룬『하루사메 모노가타리』의「시쿠비노 에가오」사이에는 아키나리의 저서 폐기 사건(우물에 저서를 던진 행위)이 있었다. 나가시마 히로아키 씨는 이것이 만년의 집필 의식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한다(나가시마 히로아키「아키나리의 저서 폐기」『문학』2007년 5, 6월호).

이 지적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도 후술하기로 한다.

3.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의 '거짓'

이하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의 '거짓' 용례를 살펴보자. 이미 서술했듯이, 서문에 덧붙여 1808년(文化 5년) 판본 『하루사메 모노가타리』를 구성하는 열 편 중에, 일곱 편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네 편에 대해 검토하겠다.

먼저 「해적」에서 해적이 기노 쓰라유키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에서 '거짓'이 나온다.

> 말이라는 어원이 그대에게서 나와서 말세에 전해진 것은 죄 있는 일이다. 또 중국의 육의(六義)라는 것은 위망(僞妄)하여 삼체삼의(三體三儀)함을 알지 못한다. 너는 거짓을 말하고, 자신에게 속은 것이다. (1808년(文化 5년) 판본 『하루사메 모노가타리』 「해적」)

쓰라유키와 같은 지식인이 '단어'와 같은 언어를 위조하여 허위 언설을 하고, 그것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지탄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도미오카 판본에는 '거짓'이라는 말이 없다).

다음으로 「이세의 인연」에서 유복한 농가의 마당에 묻혀 있다 파내져 나온 입정(入定) 남자는 시골에서 비참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그 묘사는 다음과 같다.

> 이 묻혀있던 남자는 때때로 화가 나서 눈을 치켜 올리며 말한다. 종을 치는 정(定)에 들어 있었다고 해서, 입정(入定)을 뜻하는 죠스케(定助)라고 불린다. 5년 정도 여기에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가난한 과부의 데릴사위가 되었다.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남녀 교제는 가능해 보였다. 정말로 불법(佛法)의 인과가 어떤 것인지 눈앞에서 보았다." 라고 그 마을은 물론 옆 마을에도 조금씩 소문이 났다. 법사(法師)는 화를 내며 "거짓이다." 라고 조소하며 설법하였으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줄었다.
>
> (1808(文化 5년) 판본 『하루사메 모노가타리』 「이세의 인연」)

일반적으로 「이세의 인연」이야기는 불법의 가르침의 허망함에 대한 비판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불교에 대한 회의가 마을 전체에 퍼져가는 과정, 불교에 대한 신앙 붕괴의 이야기이다. 묻혀있던 남자가 성스러움을 박탈당하고 조소의 대상이 된 결과, 마을 사람들이 불교 가르침에 회의적이 된다. 당황한 법사(이 법사는 종래의 주석에서는 마을의 법사라고 되어 있다. 이 법사를 묻혀있던 남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주석에 따른다)가 '거짓된 것'이라고 부정하려는 것은, 후세를 바라고 선(禪)의 경지에 이른 조스케의 재생(再生)을 애욕과 인과(因果)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조스케를 파낸 마을 주민의 발언이 발단이 된 날조된 이야기에 대해서이다. 조스케를 파낸 사람은, 농가에 있지만 "늘 책 읽기에 힘쓰는" 풍류인이었다. 그러나 남자를 파낼 때에는 "손을 움직이는 것이 지극히 집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심한 모습"이라고 선입관을 주는 평가를 했다. 모친은 이것을 "아이의 박식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인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에 대해 법사는 '거짓'이라고 지탄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묻혀있던 법사는 한 때 우물에 버려진 아키나리의 저술이 끌어올려진 것을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의아한 세상모습-「이세의 인연」 사견(私見)」『아키나리고(考)』 2005년 수록).

「외눈박이 신」에서는 전란 세상에서 교토에 와카를 배우러 간 동국(東國)의 젊은이에게 눈 하나 달린 신이 훈계하는 말 속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 젊은이여. 수도에 유학가는 것은 지금부터 오백년 전의 일이다. 와카에 가르침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공차기 놀이에도 법칙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비법을 전달하는데 예물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세상이다. 네가 노래를 읊으려고 한다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읊조리고 놀아라. (1808년(文化 5년) 판본『하루사메 모노가타리』「외눈박이 신」)

와카의 가르침을 비전화(秘傳化)하여 전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당상가학(堂上歌學)의 비전(秘傳)을 비판하는 비유이다.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번쾌」에서는 주인공이 큰 깨달음을 얻는 장면과 임종 장면에서 '거짓'이 키워드가 되어 있다.

"번쾌님 계십니까? 내 발심은(發心)은 처음부터 거짓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한 냥의 4분의 1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개운치 않아서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하고 꺼내어 준다. 번쾌는 그것을 손에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 "이런 바른 법사가 있는가. 나는 친형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이 꼴사납다."고 종종 생각했다. (1808년(文化 5년) 판본『하루사메 모노가타리』「번쾌」하)

번쾌가 지나가는 승려에게 돈을 내놓고 가라고 말한다. 승려는 돈을 내어주지만 조금 후 돌아온다. 자신은 발심한 이래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지만, 조금 전에는 문득 인색해져서 돈 일분(한 냥의 4분의 1)을 남기고 준 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남겨둔 돈을 번쾌에게 건넨다. 돈을 건네받고 그 순간 번쾌는 "마음이 감동되어" 승려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미치노쿠(陸奥)의 오래된 절에 있는 대고승의 이야기이다. 그가 80여세의 고령에 오늘 죽으려고, 목욕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나 부처의 이름을 읊지 않으니, 시종과 객승 등이 다가가 물었다. "성스러우십니다. 시구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 "시구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진실을 이야기 하고 죽고 싶다. 나는 호우키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악도였다. 어쩌다 깨달은 바가 있어 오늘에 이르렀다. 석가도, 달마도 나도, 모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죽었다. "마음을 다스리면 누구도 불심이 되고, 내버려 두면 요마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번쾌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1808년(文化 5년) 판본『하루사메 모노가타리』「번쾌」)

왕생의 때에 시종과 객승이 시구를 청하자, "시구라는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하고, '진실' 즉 살인과 도둑질의 한 생애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죽는다. 그것이 '번쾌'의 이야기라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하루사메 모노가타리』에는 '거짓'이라는 말이 빈번히 나오지만, 특히 권위화된 언설이나 전파된 언설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이야기의 주제와 직결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왜 아키나리는『하루사메 모노가타리』에서 이와 같이 '거짓'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 또 그것은 아키나리의 문학관과 '문헌적 니힐리즘'(일본 고대

문헌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이론)이라고 불리는 아키나리의 문헌관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4. 허구와 윤리 - 아키나리 만년의 '거짓'관 -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에서 '거짓'은 단순히 '정직'이라는 개인적 윤리에 대응하는 악으로서 지탄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표현이 숙명적으로 갖는 허구성을 의식화, 현재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가인(歌人) 아키나리의 문제이기도 했다. 노래를 포함한 "문예에서 허구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죄가 아니다" - 그러한 생각에 대해 아키나리는 항상 회의적이었다.

아키나리의 가집 『쓰즈라부미』중에 다음 노래가 있다.

> 노인(能因)이 창으로 머리 내민다.
> 거짓된 것을 나의 마음 속에서 용서받고, 헤매이는 그 길의 끝 알 수 없는 하늘

이것은 "교토 수도를 안개와 함께 나서 떠나왔구나, 가을 바람이 부는 시카카와(白河)의 관문"이라는 노래를 실제로 여행한 작품처럼 보이게 하려고, 칩거하여 몰래 얼굴을 태웠다는 노인(能因) 전설에 입각한 것이다. 가도(歌道)를 위해서 이러한 행동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로서, '거짓'이라는 말은 '용서하다'와 함께 사용되어 윤리적 성격을 지닌다.

1808년(文化 5년)에 쓰여진 『하루사메 바이카 우타분마키(가제)』에 봄비를 소재로 한 연속된 두 노래가 있다. 그 두 번째는 "봄비는 바라지 않아도 오늘도 내린다. 말을 다하지 못한 기분이 들어 또 읊는다."는 도입말 뒤에 스물 여섯 수의 봄비 노래가 연달아 있고, 마지막에 "오늘은 날이 개어 노래는 거짓말이 되었다."고 한다. 노래라고 하면 주제가 정해져서 읊는 것이 당연한 당상(堂上) 와카에서는 이러한 기술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키나리는 그것을 굳이 말하여 와카의 허구성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것은 문단사(文壇史)로 보면, 당하관(堂下官)의 와카관(觀)의 문제다. 사실

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면 노래로서의 풍류를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거짓을 배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에도 후기의 가인 가토 지카게(加藤千蔭)는 8월 15일 밤 "오늘밤도 뗏목에서 선잠을 자면서 스미다 강의 달을 보고 싶다." 라는 자작시에 대해, "정말 밤중에 뗏목을 띄우고 달을 보았다면 각다귀에게 여기저기 물렸을 것이다. 노래라는 것은 거짓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혼자 웃는다."라고 데가라노 오카모치에게 말했다. 이것은 오카모치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가토 지카게 앞으로 보낸 데가라노 오카모치 서간, 나가노 산빈 「아어속록(雅語俗錄) 사(肆)」『아속』4호, 1997년에 소개). 이것은 노래가 거짓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지카게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 오자와 로안은 말(詞)과 정(情)을 일치시키는 것이 노래의 기술이고, 증답가도 잘 읊지 못하면 거짓이 되어 버리며, 거짓을 말한다면 침묵하고 있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 무릇 말(詞)과 마음(心)이 통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사실에 어긋나면 거짓이다.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잠자코 있겠다. (오자와 로안 『잡록』 이마히에 신궁 로안 문고)

이와 같이 노래가 거짓을 동반하기 쉽다는 인식은 그것에 대한 시비 의견은 논외로 하고, 동시대 당하관 가인에게 공통된 것 같다. 이것은 소재의 본뜻을 어떻게 읽느냐에 부심하는 당상가학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면 아키나리에게 영가(詠歌)란 어떤 것인가?

> 노래도 문장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거짓되지 않게 읽고 쓰려고 한다. 이렇게 옛날 노래를 많이 외우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즐거운 놀이가 아닌가. (『이본 담대소심록』)

물론 거짓되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로안은 『후루노 나카미치』「혹문(或問)」에서, "후지산이 같은 모습으로 보일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라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읊는 노래'를 "사리에 맞지" 않

는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아키나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아키나리는 고대 사람이 거짓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이것을 문예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무릇 문장도 노래도, 세상의 모습에 따라서 마음을 얻어야만 한다. 고대 사람들은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 이치는 분명하지만, 혀 돌아가는 것이 딱딱하여 시골 사람의 호소, 지저귐으로 들린다. (『원타연오등』)

역사 서술, 학설에서 거짓에 대한 유명한 문구인 "정사라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사실을 배제하고 거짓으로 만든다."(『원타연오등』)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아키나리는 『일본서기』를 비롯한 육국사(六國史) 기술에도 편집에 관계된 사람의 자의로 인해 허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예는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서문의 "사람들에게 속아왔고 또 나도 거짓말을 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이 우라시마코는 내시사 판관(掌侍)의 이름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후대 사람이 잘못하여, 만엽집의 노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거짓으로 여기에 작문을 적었다. 이 한 조항의 잘못에 의해 후기(『일본서기』)를 궤서(譌書)라고 하는 설도 있다. (『원타연오등』)

또, '단어'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하여 쓰라유키를 비판하고 "기(紀) 씨가 말재주를 가지고 후세를 미혹한 것이 개탄스럽구나. 문자는 길에 타고 가는 가마와 말이라고 하지만, 허위도 또한 이것을 따라 달린다." (『금사』5)라고 서술한 것도 유명하다.

이상과 같이 아키나리는 노래문(歌文)에서 거짓을 회피하고 역사 서술, 학설에서 허위를 비난했지만, 앞에서 서술했듯이 노래문에서 반드시 일관된 것은 아니었고, 학설에서도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서술해 왔다는 반성이 있었다. 그 반성에서 1807년(文化 4년) 저서 폐기를 단행한 것이다.

5. 「번쾌」 마지막 부분 재고

『하루사메 모노가타리』「번쾌」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 번 생략하지 않고 예를 들어보자.

> "번쾌님 계십니까? 내 발심은(發心)은 처음부터 거짓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한 냥의 4분의 1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개운치 않아서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하고 꺼내어 준다. 번쾌는 그것을 손에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 "이런 바른 법사가 있는가. 나는 친형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이 꼴사납다."고 종종 생각했다. 법사를 향해 "당신의 높은 덕으로 마음을 다시 잡고, 이제는 형제가 되어 수행의 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한다. 법사는 동감하며 "좋은 일입니다. 함께 갑시다."라고 하며 데리고 간다. 새끼원숭이가 달밤이 나타났다. "너희들은 어디로든 떠나서 잘 지내라. 나는 이 법사의 제자가 되어 수행을 할 것이다. 목 언저리에 돌아다니는 이들도 몸에 붙지 마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을 보면서 떠나간다. "무익한 아이들은 버리는 것이 좋다. 참회는 가는 길에 듣자."라고 앞서간다.
>
> 이것은 미치노쿠(陸奥)의 오래된 절에 있는 대고승의 이야기이다. 그가 80여세의 고령에 오늘 죽으려고, 목욕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러나 부처의 이름을 읊지 않으니, 시종과 객승 등이 다가가 물었다. "성스러우십니다. 시구를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 "시구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죽고 싶다. 나는 호우키 지방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악도였다. 어쩌다 깨달은 바가 있어 오늘에 이르렀다. 석가도, 달마도 나도, 모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고, 죽었다. "마음을 다스리면 누구도 불심이 되고, 내버려 두면 요마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번쾌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번쾌는 승려의 '거짓'의 고백을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여 "이런 바른 법사가 있다니"라고 해석했다. 왜 갑자기 이러한 지적 돈오가 가능했던 것일까? 번쾌는 방랑생활 속에서 피리라는 악기와 만나고, 노무사를 통해 힘의 한계를 깨닫는 등, 그 나름의 경험을 거듭했다. 깨달음의 소양은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요약해 보면, "마음의 눈이 깨인 것"이다. 번쾌가 급히 도덕적으로 자성하고,

“친형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이 꼴사납다”고 깨달아 버린 것이, 근대적인 문학관에서 말하면 너무나도 통속적이고, 이시카와 준의 평가(『신해석 하루사메 모노가타리』부기, 지쿠마 문고 수록, 초출 1960년)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시시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독해야말로 반성해야 하는 독해법일 것이다.

「번쾌」라는 텍스트 내부에서만 보아도 그 깨달음의 계기가 된 장면이 마지막 장면과 호응하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마음을 깨달으면”의 부분이 아니라, “시구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진실을 이야기 하고 죽고 싶다.”는 부분이다. 즉 승려가 지금까지 발심 이래 거짓을 말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인색하여 거짓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의 승려의 수행이나 설법 모두가 헛된 것이었음을 승려 자신이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서까지 승려는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거기에 번쾌는 마음이 움직였다. 번쾌가 임종 장면에서 시구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은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도적으로서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은 승려의 행동과 같은 것이다.

승려의 고백 장면과 임종 장면은 이와 같이 호응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호응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문의 ‘거짓’ 문제, 혹은 『하루사메 모노가타리』 전체의 주제로 돌아간다. 승려가 취한 행동은 스스로 지금까지의 말, 행동을 모두 부정하고 얻은 사실과 경지이고, 번쾌의 돈오(頓悟) 는 스스로 지금까지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처음 인식한 것, 즉 지금까지의 행위를 전면 부정하고 얻은 사실과 경지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경지란 바로 1807년(文化 4년) 가을에 저서 폐기를 단행한 아키나리의 마음이었다. 아키나리는 저서 폐기에 대해 『후미호구』, 『대담소심록』, 『세부리노오키나전』등에서 여러 번 다루었고, 1808년(文化 5년)에 맹렬한 기세로 저술을 잇달아 했다. 여기서는 『후미호구』(文化 5년 간행)에 들어있는 모리카와 지쿠소 앞으로 보낸 아키나리 서한을 예로 들어보자.

> 그곳의 가업, 서도를 배우는 사람은, 가문마다 모두 현명하다 어리석다 말하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예기(藝技)이므로, <u>거짓이나 꾸밈이 없다.</u> 사람에게 덕을 만드

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노인들이 세상에 나와 목숨이 긴 것은 무익한 것이지만, 천록(天祿)이나 명수(命數)나를 다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고락(苦樂) 사이에 떠있으므로,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저 가볍고 희미하게 끝난다. 무익한 글을 세상에 남기지 않겠다고 이것저것 모아서 80부를 마당의 우물에 버리니, 지금은 개운하다.

기나긴 꿈을 다 꾸지도 못하고 나의 영혼이 오랜 우물에 떨어져 마음이 시원하다

(「모리카와 지쿠소 앞으로 보낸 아키나리가 가나로 쓴 소식」1807년(文化 4년) 가을(?) 『후미호구』소장)

지쿠소의 서가(書家)라는 가업을 거짓이나 꾸밈없는 직업이라고 하고, 거꾸로 자신의 무익한 업을 청산한 사실을 알리는 편지이다. 즉 자기 생애의 '거짓'을 자성하고 저서를 폐기하여, 거기에서 얻은 경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 심경이 와카 마지막의 "마음이 시원하다"이고, 이것은 번쾌가 돈오할 때 한 말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해적」에서 쓰라노리에 대한 언어 위조나 가론의 지탄, 「이세의 인연」이 만들어진 항설에 대한 비판, 「외눈박이 신」은 당상 가단에 대한 비판 등, 우언(寓言)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언설=거짓'이라는 말은, 타자에 대한 비판을 비유하면서, 자신에게도 그 비판이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고승의 시구를 '거짓'이라고 단언하는 「번쾌」에서 클라이맥스를 맞이한다.

말하자면, 「번쾌」는 자기 자신의 언설을 우물에 던져 버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화한 것이다. 굳이 깊이 해석한다면, 일부러 돈오의 장면에서 수하들 '작은 원숭이', '달밤'을 버리는 내용을 써 넣어, 아키나리의 초고(草稿)를 던져 버리는 행위와 오버랩되고, 나아가 이 기묘한 수하들의 이름은 '작은 원숭이'에 『쇼도키키미미 세켄자루(諸道聽耳世間狙)』를, '달밤'에 『우게쓰 모노가타리』를 각각 비유하고 있다고 읽을 수 있는 것이다(아키나리가 이들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번쾌의 최후의 이야기는 아키나리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적나라하게 쓴 『자전』(1808년(文化5년))을 방불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에는 의사 시절에 오진으로 "귀여운 딸 하나를 죽였다."는 고백도 있다.

나가며

나가시마 히로아키 씨가 말하는 것처럼 1807년(文化4년) 가을 아키나리의 원고 폐기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나가시마 씨는 저서 폐기 이전의 저술은 그것이 비록 문학적 작품이었지만 사서(史書)를 모방하고, 그 공백부에 아키나리의 가론, 사론을 써넣는 방법을 고수했다. 그러나 『하루사메 모노가카리』를 포함한 저서 폐기 이후의 저작에서는 자유자재의 허구가 도입되었다고 말한다. 즉 '진실된 것'에서 '거짓'으로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이 도식은 매우 알기 쉽지만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그것은 아키나리가 상상한 작중 인물 번쾌와 같이 극적이지는 않았다. 즉, 저서 폐기 이전에는 『마스라오 모노가타리』에서 '진실된 것'을 쓰기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자각하고 있었고, 저서 폐기 이후는 『하루사메 모노가타리』에서 여전히 '거짓'을 쓰는 것에 대한 가책,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저서 폐기 이후의 아키나리의 집필 행위는, 아키나리 자신의 '거짓'을 다시 한번 윤리적으로 주시하는 행위였다. 『자전』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데, 그 검토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特別企画3

秋成における「いつはり」の問題

－『春雨物語』を中心に－

飯倉洋一

はじめに

秋成の晩年の作品には「いつはり」の語が多出する。それが特に顕著に現れるのが『春雨物語』である。『雨月物語』では九編中わずか一編にしか存在しなかった「いつはり」の語は、文化五年本『春雨物語』では序文および十編の作品中七編に出てくる。『春雨物語』での用例の多さは異例というべきで、『春雨物語』にこめられた主題を考えようとする場合、その検討は避けて通れない。

1. 序文と「樊噲」末尾場面

本稿では『春雨物語』全体を貫くモチーフとして「いつはり」を考察するので、用例は唯一の完本である文化五年本の本文に拠る。まず序文を検討する(引用符、句読点、下線、()内補記は飯倉。以下も同じ)

はるさめけふ幾日、しづかにておもしろ。(歌を詠んで書きつけようと)例の筆研とり出たれど、思めぐらすに、(歌として)いふべき事も無し。「(一方)物がたりざま

のまねびは、(私にとっては)うひ事也(だが、それをやってみよう)。」「されど、おのが世の山がつめきたれば、(物がたりざまのまねびと言っても)何をかかたり出ん。むかし此頃の事どもゝ、人に欺かれしは、我いつはりとなるを(それでも語ってもよいのだろうか)」。「よしやよし、寓ごとかたりつゞけて、おしいたゞかす人もあり」とて、(書くべきか、書かざるべきかをひとりで)物云つゞくれば、猶春さめはふる／＼」。

(文化五年本『春雨物語』序文)

私自身も序文について、考察を重ねてきたが、上のように、「物がたりざまのまねび」以下を自問自答と解することで分かりやすくなるのではないか。ここでは明確な物語虚構意識とともに、虚構を「いつはり」という倫理性からとらえる見方が示されている。ここでの「いつはり」は従来「寓言」論の観点から表現方法論的に議論されてきたと言える。しかし、「よしやよし」の語がある以上、「いつはり」には、不特定多数の人々に伝えることへの、倫理的な後ろめたさも付随している。表現へ向かう意志と表現をためらう意識とが綱引きをしている。私は、座談会「上田秋成」(稲田篤信・木越治・長島弘明・飯倉洋一による。『文学(隔月刊)』2009年1・2月号、岩波書店)でそのことを主張したが、出席者の同感が得られたとは言い難かった。しかし、序文の倫理性については、最近、西田耕三もその点に注目している(「他を欺かんや―『大学』から『こゝろ』まで―」(『渾沌』6、2009年3月)。

ところで「人に欺かれしは、我いつはりとなる」はこれまで「海賊」の末尾との呼応がよく問題となっていた。

是は、我欺かれて又人をあざむく也。筆、人を刺す。又、人にさゝるゝ(ママ)れども、相共に血を不見。 (富岡本『春雨物語』「海賊」)

我欺きをつたへて、又人をあざむく也。 (文化五年本『春雨物語』「海賊」)

それを根拠に冒頭三篇の<歴史小説>としての完結性が説かれてもきた。しかし、従来あまり問題にはされないが、序文の「寓ごとかたりつゞけて、おしいたゞかす人もあり」の文言は、「樊噲」の末尾部分と繋が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この物がたりは、みちのくに古寺の大和尚、八十よのよはひして、けふ終らんと

て、湯あみし、衣あらため、椅子に坐し、目を閉て、仏名をさへとなへず。侍者、客僧等、すゝみて申。「いとたふとし、遺偈一章　しめしたまへ」と申。「遺偈と云は皆いつわり也。まことの事かたりて命終らん、我ははうきの国にうまれて、しか／＼の悪徒なりし。ふと思ひ入て、今日にいたる。釈迦、達磨も我もひとつ心にて、曇りはなきぞ」とて、死たりとぞ。「心をさむれば誰も仏心也、放てば妖魔」とは、此はん噲の事なりけり。　（文化五年本『春雨物語』「樊噲」）

引用の傍線部、臨終を迎えて樊噲が遺偈を求められると「遺偈と云は皆いつわり也」と喝破する場面である。一般にはありがたいと思われている「言葉」（言説）が、「偽り」（「寓ごと」）であると認識するという点で、序文の文言と呼応しているのである。

「いつはり」とは何か。保身・利益・言い逃れなどのために嘘をつくことが原義的な意味であるが、他人を惑わすもっともらしい言説・巷説・物語などをも指す。それらを含めて「いつはり」とは何かを意識的に追及したのが『春雨物語』の各編だという見通しを私は立てている。序文は確かに「海賊」末尾と呼応するが、「樊噲」末尾とも呼応する。

2.『ますらを物語』と「いつはり」

文化五年三月の『春雨物語』に先立ち、文化四年には『ますらを物語（仮題）』が執筆される。書くことの「いつはり」と倫理の問題は、既にこの時点で秋成において大きな問題となっていた。以下は明和五年に、妹の首を斬った渡辺源太の事件（源太騒動）を題材にした綾足の『西山物語』批判として著名な場面である。

此翁（渡辺源太）の事、一たびは世にひゞき聞えたれど、今は四十とせ過たれば、昔物語とのみに、かくて世におはすともしる人なく、我もそのかみ、此目ざまし草をつたへ聞し時、「かゝるますら雄も、世にはあんなるよ」と思しゝ（（ママ））が、生てけふたいめ給はるは、齢と云ものゝかたじけなきなれ。あなひせし大沢は、もとよりしる人にて、此昔がたりを時ゝ聞えられし。此事、西山物語と云もの、なまさ

かしき人の作りなしたりしは、かへりてよき人をあやまついたづら文也けり。唐土の演義小説、此国の物がたりぶみ、其作りし人のさかし愚にて、世に遺れると、やがての時に、跡なく亡ぶにいちじるければ、いふもさら也。是もはやくにほろびし数にぞ有ける。さて、此まさし事、おろそげの筆には書とゞむまじけれど、偽ならぬには、後長くつたへよと思ふ。読み見ん人、くり言めきたるをおしはかりして、またかたりつげよかし。

「人に欺かれていつわりをまた伝える」という『春雨物語』の序文の認識とちがって、「まさし事」を偽りなく伝えようとして、『ますらを物語』は書かれ始めるのである。だが、秋成はこの事件の顛末を書き終えて、「老がたど／＼しき筆には、又も瑾(きず)つけやすらむ。さるはあぢきなきさかしらごとなりけり」と述べている。「偽ならぬ」文章こそ長く伝えるに足るものとなる、と言った秋成だったが、『ますらを物語』を書き終えようとする秋成には、「偽ならぬ」文章を書くのは難しいというのが実感だったのであった。想像をめぐれせば、ことばを紡ぐことは偽りを生むことであるという宿命を、秋成はここで痛感したのではないか。

秋成のこの問題意識はそのまま『春雨物語』に引き継がれる。『ますらを物語』と同じ題材を扱った『春雨物語』「死首の咲顔」との間に秋成の著書廃棄(井戸に著書を捨てる行為)があり、この出来事を長島弘明は晩年の執筆意識におけるエポックメイキングだする(長島弘明「秋成の著書廃棄」「文学」2007年5・6月号)。この指摘は重要であり、本稿でも後に問題とする。

3. 『春雨物語』における「いつはり」

以下、『春雨物語』における「いつはり」の用例を見ていこう。既述のように、序文に加え、文化五年本『春雨物語』を構成する十編のうち、七編に「いつはり」の語を見出すことが出来る。そのうち、特に重要だと思われる四編について検討する。

まず「海賊」から。海賊が紀貫之に対して行う議論の中に「いつはり」が出てくる。

ことの葉と云語、汝に出て末の世に伝へ習ふは、罪ある事ぞかし。又唐土の六義といふ事は、是も偽妄にて、もしありとも、三体三義なるをさへ知らず。おのれいつはりて、己に欺かるゝ者ぞ。（文化五年本『春雨物語』「海賊」）

貫之のような知識人が、「ことの葉」などの言語を偽造し、虚偽の言説をなし、それが世に広まるということを指弾している(ちなみに富岡本「海賊」には「いつはり」の語はない)。

次に「二世の縁」。裕福な農家の庭から堀出された入定男は、里ではみじめな生を送っている。その描写。

此ほり出せし男は、時ゝ腹だゝしく、目怒らせ物いふ。「定に入たる物ぞ」とて、入定の定助と名呼びて、五とせばかりこゝに在しが、此里の貧しきやもめ住のかたへ、聟に入て行し也。「齢はいくつとて己しらずても、かゝる交りはするにぞありける。さてもさても仏因のまのあたりにしるし見ぬは」とて、一里又隣の里々にも、いひさやめくほどに、法師はいかりて、「いつはり事也」といひあさみて説法すれど、聞人やう／＼少く成ぬ。（文化五年本『春雨物語』「二世の縁」）

一般に「二世の縁」は、仏教の教えの虚妄を批判する意図があるとされる。しかし、ここに描かれているのは、仏教への懐疑が里じゅうに広がっていく過程そのもの、仏教への信仰崩壊の物語である。堀りかえされた男が聖性を剥奪され、嘲笑の対象となった結果、村人たちが、仏教の教えに懐疑的になる。あわてた「法師」(この法師は、従来の注釈では里の法師とされている。堀り出された男ととるのはたしかに難しいのでそれに従う)が「いつはり事」と打ち消そうとするのは、後世を願って入定した「定助」の再生を愛欲因果譚と位置付けるかのような、定助を堀り出した里の主人の発言を発端とする、捏造された「物語」に対してである。定助を掘り出したのは、農家でありながらも、「常に書よむことをつとめ」る風雅の人であり、男を掘り出す際には、「手動きたる、いと執念し」といい、「あさましき有様」などと先入観を与える評価をし、母親からは「子の物しり」と思われている。このように知識人によって作られる「物語」に対して法師は「いつはり」と指弾するのであるが、それは効果がなかったというのである。ちなみに私は、掘りか

えされた法師は、いったん井戸に棄てられた秋成の著述が引き上げられたことを寓していると考えている(「いぶかしき世のさま―「二世の縁」私見―」『秋成考』2005年所収)。

「目ひとつの神」では、戦乱の世に京都に和歌を学びに行く東国の若者に、老曾の森の目ひとつの神が諭す言葉の中に「いつはり」の語が見える。

> 若き者よ、都に物学ばんは、今より五百年のむかし也。和歌にをしへありといつはり、鞠のみだれさへ法ありとて、つたふるに幣ゐや／＼しくもとむる世なり。己歌よまんとならば、心におもふまゝを囀りて遊べ
>
> (文化五年本『春雨物語』「目ひとつの神」)

和歌のおしえを秘伝化して伝えることはいつわりである。という認識が示されている。堂上歌学における秘伝の批判を寓したといわれる。

『春雨物語』の最後を飾る「樊噲」では、主人公が頓悟するとされている場面および臨終の場面で「いつはり」がキーワードになっている。

> 「はん噲おはすか。我発心のはじめよりいつはり云ざるに、ふと物をしくて、今一分のこしたる、心清からず、是をもあたふぞ」とて、取あたふ。手にすゑしかば、只心さむくなりて、「かく直き法師あり、我、親兄をころし、多くの人を損ひ、盗して世にある事、あさまし／＼」と、しきりに思ひなりて、
>
> (文化五年本『春雨物語』「樊噲」下)

樊噲が通りかかった僧に、金を置いてゆけという。僧は金を出すがしばらくすると戻ってくる。自分は発心以来、偽りを言ったことがなかったが、さきほどはふと物惜しみして、金一分を残したのは、清い心ではないから、といって残していた金を樊噲に渡す。金を渡されてその瞬間、樊噲は「心さむくなりて」僧の弟子となる。

> この物がたりは、みちのくに古寺の大和尚、八十よのよはひして、けふ終らんとて、湯あみし、衣あらため、椅子に坐し、目を閉て、仏名をさへとなへず。侍者、客僧等、すゝみて申。「いとたふとし、遺偈一章しめしたまへ」と申。「遺偈と云は

皆いつわり也。まことの事かたりて命終らん、我ははうきの国にうまれて、しか／＼の悪徒なりし。ふと思ひ入て、今日にいたる。釈迦、達磨も我もひとつ心にて、曇りはなきぞ」とて、死たりとぞ。「心をさむれば誰も仏心也、放てば妖魔」とは、此はん噲の事なりけり。（文化五年本『春雨物語』「樊噲」下）

往生の時、侍者客僧が遺偈を請うと、「遺偈と云は皆いつりわり也」とし、「まことの事」すなわち、殺人や盗みを犯した生涯を赤裸々に語って死ぬ。それが「樊噲」の物語だという体裁をとっているのである。

以上を要するに、『春雨物語』には「いつはり」の語が頻出するが、とくに、権威化された言説や、伝播された言説に対する不信感を、その言葉で表わしており、それが物語の主意と直結していそうな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なぜ秋成は『春雨物語』において、このように「いつはり」という語を多用するのか、またそれは秋成の文学観や、「文献的ニヒリズム」(日本古代の文献は真実を記していないという考え方)といわれる秋成の文献観とどう関わるのか。

4. 虚構と倫理—秋成晩年の「いつはり」観—

『春雨物語』において、「いつはり」は単に「正直」という個人的倫理に対応する悪として指弾されるのではなく、言語表現が宿命として持つ虚構性を、意識化・顕在化する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たと思われる。この問題は、歌人秋成の問題でもあった。歌を含む「文芸における虚構は人を傷つけるわけではないから罪はない」—そういう考えに対して、秋成は常に懐疑的であったと思われる。

秋成の歌集『藤簍冊子(つづらぶみ)』の中に、次の歌がある。

能因窓よりかしらさし出したる。
いつはりを我心からゆるされて迷ふか道のはてしらぬそら

「みやこをばかすみとともにたちしかど秋風ぞふくしらかはのせき」の歌を、実際に旅した作と見せるために籠居してひそかに顔を日焼けさせたという能因伝説

を踏まえたもの。歌道のためにこのようなことをすることは是かという問いがこめられた歌で、「いつはり」の語は「ゆるす」とともに用いられて倫理的である。

文化五年に書かれた『春雨梅花歌文巻(仮題)』に、春雨を題とした二つの連詠がある。その二つ目は、「春雨こからねど、けふもふる。物いひ残したるこゝちすれば、又よみける」の前書のあとに、二十六首の春雨詠が連ねられ、末尾に「けふはふり晴たれば、歌はいつはり言なりける」という。歌といえば題詠であることが当然の堂上和歌においては、このような述懐はありえないだろう。それをあえてことあげすることで、秋成は和歌の虚構性を前面に押し出してくる。

これは文壇史的に見れば、地下(じげ)の和歌観の問題ということになる。事実をありのままに歌えば歌としての雅境を失うが、それでも偽りを排除するかどうかである。たとえば江戸後期の歌人である加藤千蔭は、八月十五夜「こよひしも筏の床にうきねしてすみだ河原の月をみてしか」という自作について、本当に一晩中筏を浮かべて月をみたりしたら、藪蚊にここかしこ刺されるにちがいない。つまり「歌てふものはいつはりのみいふ物ぞとひとり笑ひ侍る」と、手柄岡持に言ってよこした。そのことを岡持が書いている(加藤千蔭宛手柄岡持書簡、中野三敏「雅語俗録　肆」『雅俗』4号、1997年に紹介)。これは歌というものは偽りぬきには成り立たないという認識を示しているが、そのことを千蔭が苦笑いを交えながらも表明しているということ自体には注目すべきだろう。

また小沢蘆庵は、詞と情を一致させるのが歌の技術であり、贈答歌も上手にうたわなければ、偽りになってしまう、偽りを言うくらいなら黙っていた方がましだという。

> 凡(およそ)詞と心と相通ずることはありがたきものなり。されど、事実にたがへば偽なり。偽をいはんよりはもだしてあらん。
>
> (小沢蘆庵『雑録』、新日吉神宮蘆庵文庫蔵)

このように、歌は偽りを伴ないがちであるという意識は、それへの是非の意見はともかくとして、同時代の地下歌人に共通しているようである。これは題の本意を如何に読むかに腐心する堂上(とうしょう)歌学のあり方とはかなり違うと言

えよう。

では秋成の中で、詠歌はどうあるべきだというのだろうか。

> 歌も文も、我思ふ事をいつわらずによみかきせうと思ふて、かゝん古歌をたんとおぼようとも思はずして、楽な遊びじや。（『異本胆大小心録』）

もちろん、いつわらなければよいというものではない。たとえば蘆庵は『ふるの中道』「或問」で、「富士の山同じ姿にみゆるかなこなたおもてもあなたおもても」の「ただ言歌」を「事理に通達」していないことを理由に退けているが、秋成も同様の考えを持っていただろう。

秋成は古代の人がいつわりごとをしなかったと述べているが、これを文芸として高く評価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

> 凡文も歌も、世のありさまにつきてぞ、こゝろをうべき。古代の人は心直くすが／＼しく、譌言せず。其ことわりはあかさらまなれど、舌だみこち／＼しく、田舎人の訴へ言囀りなすにぞ聞ゆ。（『遠駝延五登』）

歴史叙述・学説におけるいつわりについては、有名な、「正史といへども、時にあたりては実をしりぞけ譌りを設く」（『遠駝延五登』）を挙げるまでもなく、秋成は『日本書紀』をはじめとする六国史の記述にも編集に関わる者の恣意により虚偽が記されていると考えていた。次のような例は、『春雨物語』序文の、「人に欺かれしは、我いつはりとなる」の事例のひとつと捉えられていただろう。

> このうら島子は掌侍の名にて、混ずべくもあらぬを、後の人の猥わざして、万葉の歌を正実の事とおもひ、譌りてこゝに作文を書くはへし也。此一条の猥わざによりて、後紀（『日本後紀』）を譌書と云説もあり。（『遠駝延五登』）

また、「ことのは」の語を創ったとして、貫之を批判し、「紀氏の口才をもて、後をまどはす事の悲しさよ。文字は道を乗する輿馬といへども、虚偽も亦是につきて走る」（『金砂』五）と述べたことも有名である。

以上のように秋成は、歌文におけるいつわりを忌避し、歴史叙述・学説における虚偽を非難したが、歌文においては、先に述べたように必ずしもそれを貫けるものではなかったし、学説においても人を惑わすようなことを述べてきたという自覚に基づく反省があった。その反省から断行したのが、文化四年の著書廃棄なのである。

5「樊噲」末尾部再考

『春雨物語』「樊噲」末尾をもう一度省略なしに挙げてみよう。

「はん噲おはすか。我発心のはじめよりいつはり云ざるに、ふと物をしくて、今一分のこしたる、心清からず、是をもあたふぞ」とて、取あたふ。手にするしかば、只心さむくなりて、「かく直き法師あり、我、親兄をころし、多くの人を損ひ、盗して世にある事、あさまし／＼」と、しきりに思ひなりて、法師にむかひ、「御徳に心あらたまり、今は御弟子となり、行ひの道に入ん」と云。法師感じて、「いとよし、来よ」とて、つれだち行。小ざる、月夜出きたる。「おのれ等いづこにも去り、いかにもなれ、我はこの法しの弟子と成て、修行せん、襟もとの風、身につくまじ、又あふまじきぞ」とて目おこせて別れゆく。「無やくの子供等は捨よかし、懺悔行々聞ん」とて、さきに立たり。
この物がたりは、みちのくに古寺の大和尚、八十よのよはひして、けふ終らんとて、湯あみし、衣あらため、椅子に坐し、目を閉て、仏名をさへとなへず。侍者、客僧等、すゝみて申。「いとたふとし、遺偈一章しめしたまへ」と申。「遺偈と云は皆いつわり也。まことの事かたりて命終らん、我ははうきの国にうまれて、しか／＼の悪徒なりし。ふと思ひ入て、今日にいたる。釈迦、達磨も我もひとつ心にて、曇りはなきぞ」とて、死たりとぞ。「心をさむれば誰も仏心也、放てば妖魔」とは、此はん噲の事なりけり。

樊噲は、僧の「いつはり」の告白を「心さむし」と受け取り、「かく直き法師あり」と解釈した。なぜ急にこのような知的頓悟が可能なのだろうか。樊噲は放浪生活の中で、笙という楽器に出会ったり、老武士に力の限界を悟らされるなど、それ

なりの経験を重ねてきた。頓悟する下地は出来ていたのである。要するに、「心をさめ」たのである。樊噲が急に道徳的に自省して、「親兄をころし、多くの人を損ひ、盗して世にある事、あさまし／＼」と悟ってしまうというのが、近代的な文学観からいえばあまりにも通俗的で、石川淳の評価(『新釈春雨物語』附記、ちくま文庫所収、初出1960年)に象徴的なように、つまらないとされるわけなのだが、そういう読み方の方こそが、反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樊噲」というテクスト内部だけでも、この頓悟の契機となった場面が最終場面と呼応していることはすぐにわかる。ただしそれは、「心をさむれば…」の部分ではなく、「遺偈と云は皆いつはり也。まことの事かたりて命終らん」という部分なのである。

僧が、これまで発心以来いつわりを言ったことがなかったのに、お金惜しさに偽りをしたことを告白すること、それは、これまでの僧の修行や説法すべてが空し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僧自身が認めるのに等しいことである。そこまでして僧は「まことの事」を語ったのである。そこに樊噲は胸打たれた。樊噲が臨終場面で、遺偈が皆いつわりであり、自分は「まことの事」を語ると言って、自らの盗賊としての人生を語ったのは、僧の行動と同じことをしているのである。

僧の告白の場面と臨終の場面はこのように呼応している。ではその呼応の意味は何か。おそらく序文の「いつはり」の問題、あるいは『春雨物語』全体の主意に帰る。僧のとった行為は、みずからのこれまでの言葉・行為を全否定して獲得した真実・境地であり、樊噲の頓悟は、みずからのこれまでの行為を倫理的にはじめて認識すること、つまりはこれまでの行為を全否定して獲得した真実・境地であることにおいて、共通している。

この境地は、文化四年秋に著書廃棄を断行した秋成の心象そのものであったと思われる。秋成は著書廃棄について、『文反古』『胆大小心録』『背振翁伝』などで何度も触れていて、これを経て文化五年に猛烈な勢いで著述を次々に行っている。ここでは、『文反古』(文化五年刊)に収められた森川竹窓宛秋成書簡を挙げておこう。

そこの家業、手かくならひは、家ごとに、みなさかし愚をいはずつとむべき芸技

なれば、偽りかざりなく、人に徳つくるはいみじのわざなり。翁がともがらの、世に立はさまれて、いのちながきは無益なるものなれど、天禄とか命数とか、そのかぎりは苦楽のあひだにたゞよひてあるから、人のためにえならず、人に役せらるべきにあらねば、たゞ薄く着、淡きをくらひて終らむの外なし。無益の草紙世にのこさじと、何やかやとりあつめて、八十部ばかり、庭の古井にしづめて、今はこゝろゆきぬ。

ながきゆめみはてぬほどに我たまの、ふる井におちて心さむしも

(「森川竹窓宛秋成和文消息」文化四年秋か、『文反古』所収)

竹窓の書家という家業を偽り飾りない職人芸だとし、翻って自らの無益な業を清算したことを知らせる手紙である。つまりは、みずからの生涯の「いつはり」を自省して、著書を廃棄し、そこに獲得した境地を述べている。その心境が、和歌の末尾の「心さむしも」であって、これは樊噲の頓悟時の言葉と同じなのである。

であるとすれば、「海賊」における海賊の貫之に対する言語偽造や歌論の指弾、「二世の縁」の作られる巷説への批判、「目ひとつの神」の堂上歌壇の批判など、寓言という方法を通して行ってきた、「言説＝偽り」の説は、他者への批判を寓意しながら、自身も返り血を浴びていたことになるだろう。それは高僧の遺偈を「いつわり」と断じる「樊噲」でクライマックスを迎える。

いわば、「樊噲」は、自分自身の言説を井戸に投棄するに至るまでを物語化したものだったといえるだろう。あえて深読みすれば、わざわざ頓悟の場面で、手下の「小猿」「月夜」を捨てる場面を書きこんでいるのは、秋成の草稿を投棄する行為と重なって見えるし、さらにいえば、この奇妙な手下の命名は、「小猿」に『諸道聴耳世間狙』を「月夜」に『雨月物語』をそれぞれ寓意しているとさえ読めるのである(秋成がこれらの作品について語りたがらなかったことはよく知られている)。

樊噲の最後の語りは、秋成の、自らの人生を振り返って赤裸々に綴った『自伝』(文化五年)を髣髴とさせる。ちなみに『自伝』には医者時代の誤診で「いたいけなる娘ひとりをころした」という告白もある。

おわりに

長島弘明氏がいう通り、文化四年秋の草稿投棄は、きわめて重要である。氏は、著書廃棄以前の著述は、それがたとえ文学的な作品であっても、史書の表側をなぞりながら、その空白部に秋成の歌論・史論を書きこむという方法が守られているが、『春雨物語』を含む、著書廃棄以後の著作には、自在な虚構が取り入れられているという。つまり「まさし事」から「いつはり」へという認識の転換があったという。

この図式は非常にわかりやすいのだが、見てきたように、それは秋成が想像した作中人物樊噲のようには劇的には行かなかったという見方も十分に可能だろう。つまり、著書廃棄以前には、「ますらを物語」において、「まさし事」を書くことの困難は既に自覚されていたし、著書廃棄以後は、『春雨物語』において、依然として「いつはり」を書くことへの後ろめたさ、罪意識から解放され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からである。

著書廃棄以後の秋成の執筆行為は、秋成自身の「いつはり」をもう一度倫理的に見つめなおす行為であったと、考えておきたい。『自伝』はその意味で重要な文章であるがその検討は別の機会に譲りたい。